카드캐시백, 최대 20만원…대형마트 제외·배달앱 포함 검토

기재부 '코로나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시행기간 3→2개월 단축…1인당 月 10만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시행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지원 금액도 1인당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하다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

애초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시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캐시백 정책이 2개월로 단축됐지만 소비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예상치 않게 소상공인의 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는데 호전된다면 이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형 슈퍼마켓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한다.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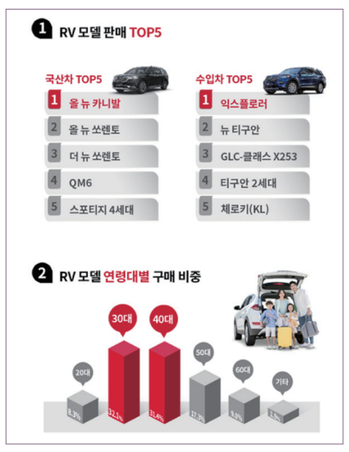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 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롯데마트, 괴산 대학 찰옥수수 판매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모델이 '괴산 대학 찰옥수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새벽에 수확한 '괴산 대학 찰옥수수'를 산지 직배송해, 오후에 롯데마트 및 롯데슈퍼 8개점에서 판매한다.

케이카, 캠핑·차박 인기 레저용車 판매 31% 증가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기업 '케이카(K Car)'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열풍, 여름휴가의 국내 집중 현상 등으로 올해 2분기 레저용차량(RV)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케이카 전체 판매 차량 중 RV 모델 판매 비중은 29.5%로, 3대 중 1대꼴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미니밴 등 RV 모델의 판매량이 31% 증가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 돌입과 최근 레저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차박' 열풍에 더해 코로나19로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이 늘어나면서 RV 모델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 잦은 3040세대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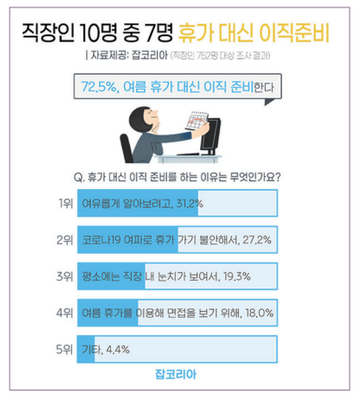
RV 모델 베스트 셀링카를 분석한 결과, 국산차 부문에서는 기아 올 뉴 카니발이 1위를 차지했다. 카니발은 국산 유일 미니밴 모델로 전년 대비 판매가 50% 증가했다. 이어 기아 올 뉴 쏘렌토, 더 뉴 쏘렌토, 르노삼성 QM6, 기아 스포티지 4세대 등 SUV 모델이 순위를 차지했다. 수입차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 폭스바겐 뉴 티구안, 벤츠 GLC-클래스 등 중대형 SUV 차량이 이름을 올렸다.

RV 구매 고객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040세대가 전체 대비 63.5%를 차지하며 핵심 수요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는 전체 차량 구매에서는 28.3%를 차지했으나 RV 모델 구매 비중은 이보다 높은 31.4%로 집계됐다.

아동기부터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 세대들이 가족활동을 위해 RV를 선택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RV 모델의 유종별 판매 비중은 디젤이 73.1%로 압도적이었다. 자동차 시장에서 가솔린 모델의 인기가 크게 늘었음에도, 많은 인원과 짐을 싣고 장거리 운전에 나서야 하는 RV 특성상 연비와 출력이 좋은 디젤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시스



직장인 70프로 "여름 휴가 대신 이직 준비"

여름휴가철이 다가왔지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여름휴가 기간 이직 준비를 하겠다는 응답이 나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여름 휴가 기간 중 이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72.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47.3%가 여름휴가 대신 이직을 준비한다고 답한 것에 비해 2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여름휴가 대신 이직 준비를 하는 이유로는 '여유롭게 이직할 기업에 대해 알아보려고'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휴가를 떠나기 불안해서'라는 응답도 27.2%로 비교적 많았다. 이 밖에 '평소 직장생활 중에는 이직 준비가 눈치 보여서'(19.3%), '여름휴가를 이용해 지원기업 면접 등을 보려고'(18.0%)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이직 준비 계획(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이력서·경력기술서 작성 및 업데이트'가 응답률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면접 준비'(22.9%),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준비'(22.2%), '기업들의 채용공고 검색'(15.6%), '포트폴리오 제작'(8.4%)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평소 자신의 업무 성과 정리 등 이력서를 틈틈이 관리한다고 밝혔다. '평소 자신의 업무 성과 정리 등 이력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6.8%가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정리해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이력서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22.9%), '성과 정리 및 이력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20.3%) 등이었다.

이직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취업포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용공고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복수응답) 직장인 80.7%가 '취업포털의 노출공고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취업포털의 문자·이메일 등 푸시 공고'(37.7%)', '헤드헌터'(22.5%), '지인 추천'(2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휘발유값 곧 떨어진다"…'선행지표' 국제가격, 2주 하락

국내 가격 또한 내달 중순부터 안정될 가능성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1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선행지표인 국제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내달 중순부터는 국내 가격 또한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추가 감산 완화조치에 합의한 것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3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1원 오른 리터(ℓ)당 1637.2원으로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동기간 경유 판매 가격도 ℓ당 1433.3원으로 8.9원 올랐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9.9원 상승한 ℓ당 1720.1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82.9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7.2원 상승한 1616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1.1원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국내 유가의 선행지표인 국제 휘발유(92RON) 가격은 7월 1주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7월 2주 가격은 전주 대비 0.46달러 내리는데 그쳤다.

하지만 3주 가격은 2.82달러 더 내리며 배럴당 80.67달러까지 하락했다.

뉴시스

미래에셋, 경도 해양친수공간 다음달 착공 한다

하반기부터 관광테마시설 세부 설계…사업비 조달 병행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감도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내 해양친수공간 조성공사를 오는 8월 착공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한 펀드 설정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 2017년 1월 사업협약 체결 후 해외 유명 설계사인 네덜란드 유엔 스튜디오(UN Studio)를 설계사로 선정하고 2019년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싱가포르 센토사와 마카오, 하와이 등을 벤치마킹해 마리나 등 12종류 관광테마시설을 5성급 호텔과 콘도가 위치한 선라이즈 워터프론트 지구에 집적화했다.

선라이즈 워터프론트 지구에 들어서는 관광테마시설은 실내·외 워터파크, 마리나, 해상케이블카, 엔터테인먼트센터, 대규모 상업시설, 1000석 규모의 컨벤션 등이 있다.

또 해양친수공간, 해수풀, 인공해변, 해양레포츠시설, 실외공연장, 해안산책로도 조성하며, 해수풀 등 일부 관광시설은 여수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미래에셋은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광테마시설과 호텔, 콘도에 대한 시설별 세부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 마련을 위한 펀드 설정 등 자금 조달 준비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 기자

말보로 담배 "10년내 판매 중단"

전자담배 등 현대적인 대안 택할 수 있도록 집중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향후 10년 내 영국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5일(현지시간) 야체크 올자크 필립모리스 최고경영자(CEO)가 필립모리스가 영국 내 전통적인 흡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신 전자담배 등 현대적인 대안을 택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자사 담배 브랜드 '말보로'가 영국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첫번째 선택은 담배를 끊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차선책은 더 나은 대안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영국에서 시작된 담배 제조회사 필립모리스는 최근 연초형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담배 등 대안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다.

이달 초에는 천식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영국 의약업체 벡투라를 인수하기로 했다.

오유나 기자